

圖 巡 訪 圖

학의 글집

학(鶴)의 글집은 成均館大學校 總長 權五翼 博士가 일찌기 글을 위해 배우다 쓰러진 令息 景潔 君을 記念하기 위한 畢生의 社會事業을 圖書館에서 찾으려고 1968年 8月 15日 開館한 記念 圖書館이다.

所在地는 京畿道 始興郡 儀旺面 鶴儀里, 安養邑에서 淸溪行 버스에 乘車하여 30分 距離인 終點에서 下車한다. 路邊에 세운 案内 標識에 따라 民家를 벗어나 水晶 같이 맑은 개울을 건너 숲이 우거진 산 허리를 끼고 고개를 올라서면 視界는 전혀 樣相을 달리하여 山脈에 싸인 湖水가 아름답고 시원하다.

이 貯水池는 넓이와 水深이 郡에서 둘째, 낚시하기 좋은 곳이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의 姜太公이 즐겨 찾는 곳이란다. 貯水池의 兩便에 잇달은 기름진 논과 밭들, 언뜻 自然의 惠澤이 남달리 좋은 고장이라 느껴진다. 물을 굽어 보면서 5분쯤 걸었을까, 30戶 程度의 人家 넘어 陽地바른 산 중턱에 3層 建物이 우뚝 솟아 보인다. 바로 「鶴의 글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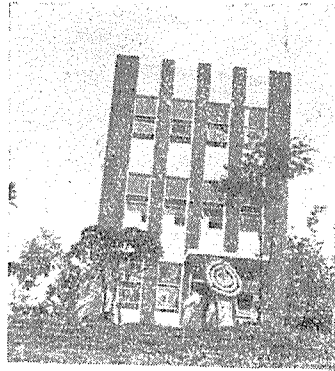
1. 施設

南向한 3千坪의 野山을 整地하여 1千3百萬원을 投資하였다는 학의 글집, 別莊, 溫室, 管理 센터 등의 建物이 適切히 配置되었고 周圍의 自然에 못지 않게 연못, 花園을 만들어 讀書施設로서의 雰圍氣 造成도 훌륭했다. 학의 글집은 3層 建物과 1層의 新館, 書庫로 構成되어 있는데 施設 規模는 特殊閱覽室 22坪(24席), 研究室 20坪(20席), 一般閱覽室 5坪(8席), 參考圖書室 10坪(12席), 定刊物室 10坪(12席), 書庫 10坪, 事務室 7坪, 休息室 3坪, 宿直室 5坪으로 總 92坪과 座席數는 76席이다.

2. 資料

藏書 總數는 6,550冊, 이러한 資料는 權總長의 個人所藏本과 開館 當時 各界의 有志들이 보낸 寄贈本 및 農村圖書館으로서 地域社會가 要請하는 新刊圖書로서 構成되어 있다. 經濟學을 위주로 한 社會學 分野의 專門圖書가 第一 比重을 차지하고, 總類와 文學이 다음 順位를 나타내고 있다. 藏書의 構成을 보면 總類 894卷, 哲學 203卷, 宗教 130卷, 社會科學 2,700卷, 純粹科學 350卷, 技術科學 531卷, 藝術 290卷, 語學 265卷, 文學 827卷, 歷史 360卷, 總 6,550卷이다.

資料의 分類는 東·西書 共히 韓國十進分類法(KDC)를 使用하고 細目以下의 分類 展開는 省略되어 있다. 目錄規則은 韓國目錄規則(KCR), 著者記號表는 延大李載喆 教授의 方法에 準據했다.



3. 奉 仕

학의 글집은 農村을 위한 公共의 圖書館으로서 發足한 事實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곳 出身의 學生層은 地理的 與件으로 大多數가 都會로 進出하거나 安養地帶의 工場에 나가고 있는 生活 環境이어서 圖書館의 利用 對象은 大體로 限定되어 있다. 더우기 다른 農村에서도 같은 現象이겠지만 農民들에게 圖書를 提供하여 讀書生活을 권장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좋은 施設를 보다 더 有益하게 活用시키고자 特殊한 專門分野를 研究하는 研究者와 各種 考試를 치르기 위해 受驗準備하는 大學生에게 自由로 門戶를 開放해주고 있다. 開館 以後 繼續하여 글집에서 生活하는 研究者가 3名, 夏季 放學을 맞은 요즘에는 24名의 各大學 學生이 學業에 餘念이 없다.

학의 글집은 公共圖書館이면서 特殊層을 위해 利用活動을 展開하고 있는 特殊圖書館의 機能도 감당하는 圖書館인 것이다. 職員은 管理人까지 合쳐 3名이 全般的인 運營을 擔當하고 있다.

圖書館의 組織이 規模가 큰 圖書館처럼 區分되어 奉仕性이 多樣한 反面에 人員이 적다. 그러나 運營에 別로 큰 蹉躓이 없는 것은 地域性에도 있지만 利用者들 모두가 학의 글집을 그들 스스로의 施設인 것으로 믿어 自治的으로 活用하는데서 自然히 業務의 簡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特異했다.

4. 展 望

학의 글집은 設立이 日淺하지만 資料·施設面에서 圖書館이 具備하여야 할 條件은 充分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公共圖書館으로서 訓練된 專門職이 없어 地域住民들에 대한 奉仕活動에 萬全을 다하여야 할 合理的計劃이 缺如된 것은 將次 研究 改善을 要할 課題이다.

1968年 圖協 總會에서 褒賞을 받은 바 있는 학의 글집은 멀지 않아 財團法人體로 育成시켜 地域社會의 文化開發과 아울러 永久한 育英事業體로서 成長되어 갈 것이 틀림없다.(南承晁)